

# 국화꽃을 피우며...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환자 소개

#### <개인정보>

- 성명 : 국화 (가명) (F/39)
- 종교 : 개신교
- 호스피스등록 : 2012. 4. 17
- 입원기간 : 2012. 4. 17~2012. 9. 27

#### - 진단명 및 경과요약

- #1. Rectal Ca, recur c LN mets, peritoneal carcinomatosis c Ureter obs. & severe Rt. hydroureteronephrosis s/p Lt. PCN insertion s/p op s/p sigmoid stent insertion
- pain 으로 epidural tunneling 시행

### 진료 부분

#### <현병력>

- 2010.03. 직장암 수술, 3기
- 2011.12. 폐, 복막 전이로 재발 확인
- 2012.02. 암에 의한 직장 협착으로 stent 삽입함.
- 2012.03. 복통 발생하여 대전O병원에 입원함. 설사 증상 있을 때 통증 호소하여 옥시콘틴, 주사용 모르핀, 듀로제식 패취 스펙타, 로페라마이드
- 2012.04.17.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함.

#### <주소 및 진찰소견>

- 1개월이상
- 처음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었으나 최근은 소량의 묽은 변만 배출되며 변볼 때 배가 아프다고 호소
- VAS 5~6, 돌발성 3회, 속효성진통제 (+)
- ECOG 3
-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은 정상범위
- 복부 팽만(+), 전반적인 압통(+), 장소리(+)

#### <추정진단 및 계획>

- #1. Stent malfunction(스텐트)

R/O stent 안으로 암이 자람.

R/O stent 위치 이동

Sigmoidoscopy(S상 결장경), 복부전산화단층 촬영

- #2. Stool impaction(분변 막힘)

Finger enema, Glycerin enema, 진통제 투여

- #3. 암성, 내장성, 마약성

#### <통증 및 설사 경과>

관장 권유에 망설임.

Glycerin enema 후 많은 양의 대변 배출

통증도 감소, ECOG 2

설사 사라짐.

6병일째까지 관장하여 대변 배출함.

관장 시 복통 호소하여 7병일째 부터는 간헐적으로 시도함. → 내장성, 암성, 마약성

이후에도 식사를 유지하면서 간헐적 관장을 함.

#### <복부 산통>

마그밀

복강내 암성 병변과 변비약의 활동제약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복부 산통시 부스코판 장운동 저해제

16병일째 쇠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통증 호전되어 식사 가능  
 이후로도 변비에 의한 통증과 장운동, 보호자는 적절히 대처

<고열>

55병일째 고열 발생함.  
 추정 진단 R/O 중심정맥관 관련 패혈증  
 R/O 복강내 암성 병변  
 항생제 투여하면서 혈액배양검사  
 Staphylococcus 배양되어 중심정맥관 관련 패혈증  
 항생제 투여로 호전됨.

<불안함>

복통과 설사로 입원 당시의 불안함 새로운 환경 (병원  
 의료진)  
 관장 시도 이후에도 장운동 향진, 변비 있을 때 원인  
 과 증상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알겠다”는 말과

“더 이상 물어 볼 것은 없다.” 라고 함.

<고열 발생 시의 불안함>

고열 발생 시 복부 CT 시행 후에 하라고 함.  
 신체적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불안함을 보임.  
 → 이외의 순간에는 안정되어 보임.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내용은 항상 없다고 함.

<문제 목록>

- #1. 분변 막힘, 변비 #2. 복부 산통
- #3. 고열 #4. 불안함

<다른 문제>

질병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  
 신념, 병식, 원하는 목표, 성장하고 삶이 의미가 있는  
 지, 환자와 가족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 목적, 죽음  
 이후의 인식, 죄의식, 용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과업

<의료진의 문제>

문제 해결 조급함. 답답함.

간호 부분

<개인력>

- 병식 : 있음
- 종교 : 기독교(제칠일안식일교)
- 성격 : 이성적, 완벽주의자,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  
 사소한 실수들이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을 줌.
- 힘과 희망을 주는 대상 : 가족, 종교
-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대상 : 남편

<환자사정>

- 의식 : 명료
- 식이형태 : Tolerable Diet
- 피부 : 마르고 건조한 피부, 욕창 없음.
- 배변 : 하루 2~3회
- 배뇨 : 왼쪽 신장루 평균 2000CC
- 활동정도 : ECOG 3점

<심리사회적사정>

- 어린이 집 원장, 활동적임.
- 남편, 아들 위주의 생활.
-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 생활을 즐기지 못함.

- 남겨질 남편, 아들에 대한 걱정.
- 암 발병이 벌이라 생각함.
- 발병 후 종교적 믿음 각별해짐.

<가족의사정>

- 남편 : 성실 근면한 성격, 다정하지 않음, 융통성 없  
 는 성격. 환자와 불화를 겪음.
- 아들 : 중1, 이모와 서울에서 생활 중임. 밝고 명랑한  
 성격. 어린시절 엄마의 훈육법에 상처가 있음.
- 어머니 : 환자의 주 간병자, 어린이 집 운영 시 도움.  
 여동생 : 피아노교습소 원장으로 지내며 조카 양육  
 에 도움.
- 아버지, 남동생 : 환자의 발병을 마음으로 아파하며  
 지지함.

<간호진단>

- 악성종양과 관련된 통증
- 죽음과 관련된 불안
- 불가능한 회복과 관련된 비효율적 개인대처
- 의미 있는 대상 상실과 관련된 비효율적 가족대처

<악성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부위 : 복부, 항문, 회음부, 경추
- 양상 : 짓눌리는 듯한, 쑤시는 듯한, 뒤틀리는 듯한 통증
- 악화요인 : 배변 또는 gas out 후
- 완화요인 : 진통제투여 및 휴식
- 강도 : 통증 시 NRS 6~7
- 통증조절 : 입원 시부터 지속적 N-MPA 수액투여  
현재 N-MPA 800MG+HPDA 0.5A+5DW2  
PRN 100MG IV (하루 2~3회 투여), HYBA 1A IV  
신경차단술(경추), 경막외 거치술

[계획 및 중재]

통증을 표현하도록 격려, 진통제 투여.  
이완요법 : 아로마요법, 음악요법, 온 요법, 마사지요법.  
통증에 영향을 주는 불안에 대한 다학제간 팀 접근.  
불안을 사정, 지속적인 면담 및 종교적 접근.

[평가]

가족과 편안한 모습으로 지냄.  
종교적 돌봄이 필요하여 담임목사와의 주기적 만남 주선.  
불안한 모습 다소 있으나 일상적인 여유 찾음.

<죽음과 관련된 불안>

[사정]

- “너무 아파서 간혹 죽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했어요.”
- “이제 정말 살고 싶은데... 좀 더 살 수 있을까요?”
- “엄마나 남편이 아닌, 내가 암에 걸려 다행이에요.”
- “내가 대신 아파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
- 암 투병을 같이 한 환우가 임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함.
- 남겨질 남편, 아들을 걱정하는 모습 보임.
- 통증 악화 시 불안에 떠는 모습 보임.
-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순응하려는 마음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임.

[계획 및 중재]

-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대화나 편지 쓰기 격려.

- 아로마요법, 미술요법을 통한 불안 표현
- 종교적 접근을 통한 환자의 영적 불안 완화
- 음악요법을 통한 불안 경감
- 다학제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평가]

- “아프기 전에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 “먼저 떠났던 언니들이 간혹 생각나요. 이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면 좋겠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요.”
- “다른 암환자들보다, 내 형편이 좀 더 나으니까...”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남았으나 본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게 됨.
- 가족 모두 환자에게 집중하며 사랑을 표현함.
-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팀 접근 필요.

<불가능한 회복과 관련된 비효율적 개인대처>

[사정]

- “나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지금으로선 계속 기대하게 되요.”
-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멎해요.”
- “다시 새 삶을 살게 되면, 이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선 제일 끈참으니까...”
- 현 상태에 대해 알고 있으나 나을 수 있다는 기적을 이야기함.
- 수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억지로 먹고 있음.
- 잠이 오는 상태에서 잠을 깨려 무리하게 운동하고 있음.
- 남편이나 어머니의 부재가 길면 짜증내며 불안해하는 모습 보임.

[계획 및 중재]

- 환자의 불안감을 사정하고 경청함.
-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 시행 및 정보를 제공함.

- 다학제간 팀 접근을 통해 환자와의 면담을 시도함.

**[평가]**

- 환자와의 지나친 rapport 형성이 정보 전달을 막게 됨.
- 나올 수 있다는 환자의 기대는 변화 없는 모습임.
- 가족은 현 상태를 받아들이나 환자에게는 전달 못함.

**<의미있는 대상 상실과 관련된 비효율적 가족대처>**

**[사정]**

-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만...엄마가 아픈 건 싫어요.”(아들)
- “지금까진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남편)
- “우리 애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야 할 텐데..”(어머니)
- 환자가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기운 내려는 모습을 안타까워함.

- 가족이 항상 환자의 옆을 지키며 용기를 주려 하는 모습보임.
- 임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없음.

**[계획 및 중재]**

- 환자와 남편, 아들과 함께 화해의 시간 마련함.
- 호스피스 팀에서 준비한 선물을 아들에게 전달.
- 아로마요법, 미술요법을 통해 가족 위로.
- 음악요법 및 마음나누기를 통해 남편의 마음을 알아줌.
- 담임목사와의 시간을 통한 영적 지지.

**[평가]**

- 가족은 긴장된 모습이긴 하나 임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함.
- 환자는 남편에게 신뢰와 사랑을 표현함.
- 아들이 환자에게 마음을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함.

**사회복지 부분**

**Information Gathering**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주거형태 : 자가  
 결혼상태 : 기혼  
 직업 : (전) 어린이집 원장  
 의료보장 : 지역의료보험  
 개입일 : 2012.5.11~2012.9.27

**Personal History**

-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환자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아 어딜 가도 기운 없어 하며 웃지 않고 토라진 것처럼 귀찮아 해 무리에서 쳐지는 편이었다고 함.
- emotional tuning이 잘되는 환자의 모는 이런 환자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챙겼다고 함.
- 주변 상황에 대한 취약한 대처 능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었다고 하며, 좋고 싫은 사람을 구분 지어 관계를 형성했다고 함.
-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환자는 결혼 이후 판단형인 남편과의 다른 성향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이 컸다고 함.

**Risk Factor screening**

- 어린 자녀      - 가족문제

**ASSESSMENT**

**심리 사회적 평가 · 가족평가**

**[원가족]**

- 모 : 자녀들과 emotional tuning 잘됨. 환자가 심리적으로 가장 의지, 주보호자임.
- 부 : 자녀들 엄하게 키웠다고 하나, 손자인 환자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수용하며 돌보고 있음.
- 여동생 : 외향적인 성향으로 환자와 단짝친구처럼 늘 함께 다녔다고 함. 환자에게 지지적 자원이며 타지에 있는 환자의 아들 옆에서 돌봐주고 있음. 환자는 시골스럽고 무뚝뚝한 남편과 달리 제부가 다정다감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을 무엇보다 부러워했다고 함.
- 남편 : 환자와 8살 차이로 융통성 없고 감정표현 하지 않는 스타일, 가족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함. 병 발병 전 환자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죄책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 환자-남편 : 부부의 상이한 중심가치관으로 발병 전까지 지속된 부부갈등.

S : “엄마 나 헤어지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00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죽고 싶다...”

A : 가장의 역할은 책임감이면 된다고 확신하는 고지식한 남편과 세심하게 챙겨주길 원하는 환자와의 욕구 차이 적절한 의사소통의 시간 없이 지속적인 갈등 쌓아 온 상황.

아들 : 부적절한 감정 표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한 표현.

S : “힘들지 않아요. 다 괜찮아요. 이 고비를 넘기면 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어 강해질거예요. 나에 대해 신경쓰지 마세요.”

[불안감, 외로움]

S : “엄마랑 아빠가 저 네살때 크게 싸우고 엄마가 가출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불안해요. 그때처럼 엄마가 날 두고 가면 안되는데... 집에오면 늘 혼자인게 싫어서 해질녘쯤 시골길을 자전거로 다니며 이런저런 생각하곤 했어요.”

A : 공부에 대한 관심 외에는 감성적으로 함께 해주는 가족 부재로 인한 외로움.

[환자(모)와의 이해결된 갈등 : 환자의 억압과 비일관적인 체벌]

S : “엄마의 발소리가 무섭기만 하고, 실수하지 않았을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맞고, 그래서 슬프고 미웠어요.”

A : 환자는 남편과의 갈등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들에게 비일관적인 체벌을 가함.

[아들-남편과의 갈등]

남편

S : “너무 칭찬하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요. 내가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약속은 아들이 이유 불문 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아들

S : “아빠는 날 의심해요. 어떻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때 본 것만으로 혼내고... 엄마는 아빠와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린 것 같아요.”

## Intervention

### 심리·사회적 개입

[환자-아들]

적절한 감정표현을 위한 개별상담 진행.

→ 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그로 인한 죄의식, 고마움에 대한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진행

E : “엄마 기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 환자와 감정 표현 나눌 수 있도록 편지 쓰기 실시

E : 환자와 아들 편지글 함께 나누며 충분한 감정 나눔.

[심리적 건강함 유지 위한 개입]

→ LMT 실시와 긍정적 자아상 형성 위한 개별 상담 진행

→ 가족들과 함께 LMT에 대한 설명 후 아들 지지 권한.

→ 학교 담임교사와 심리적 지원 위한 논의.

[모와 추억만들기 이벤트 진행]

→ 사별 후 모와의 좋은 추억과 긍정적 힘이 될 수 있도록 모의 메세지가 담긴 목걸이 선물.

## 원목 부분

### 영적돌봄(1)

- 2010년 : 결장암 수술
- 2011년 : 재발 투병 중, 허리 못 펴.
- 모습 : 성경을 자주 읽음 or 친정어머니께서 읽어줌.
- 성경 말씀 : 위안을 받고 큰 힘을 얻음.

### 영적돌봄(2)

- 국화 : 8살 위인 남편과 결혼,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삶.  
원 :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환 : 아이가 3살 때였어요.
- 친정어머니 : 유아교육 전공, 손자를 정성을 다해 키움.

- IMF로 국화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시작 됨.
- 남편 : 건축업, 경제적, 가정에 소홀, 생활력 없고 무책임, 미움과 잦은 말다툼으로 많이 힘들었음.

### 영적돌봄(3)

- 12년 4월 17일에 본원 호스피스병동 입원, 복도에서 성경 읽음.

원 : 오늘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환 :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로마 14:8)

환 : 저는 사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이 되요. 남편도 다른 가족들도 괜찮은데 지금 중1밖에 안된 아들이 마음에 걸려요.

원 : 그러시죠.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 인데……. 아들에게 뭐가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환 :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마음에 들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 영적돌봄(4)

원 : 종교 간에 갈등은 없으셨어요?

환 : 성경말씀은 똑같아요. 저는 말씀이 좋아서 믿게 되었어요.

원 : 오늘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환 :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 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요한 6.32-33)

원 : 생명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자매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생명 하나까 김남조 시인의 '생명'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 영적돌봄(5)

• 다음날 생명 시를 읽어드리고

원 : 진정한 사랑, 생명을 느끼게 하지요? 이런 사랑을 해 보셨나요?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생명은…… 금이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 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영적돌봄(6)

환 : 저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요. 요즘 들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어려울 때 좀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땐 제가 마음이 웅졸해 매일 화만 내고, 남편한테 미안해요. (눈물을 흘린다.)

원 : 지금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지난 날 미안한 마음 다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환 : 다 얘기 했어요. 남편도 저도 미안하다고 용

서해 달라고 서로 화해했어요. 지금은 잘 해줘서 미운 감정이 없어졌어요.

원 : 그러셨군요. 잘 하셨네요.

#### 영적돌봄(7)

원 : 국화님은 '한 여름의 꽃'하면 어떤 꽃이 생각나세요?

환 : 채송화, 나팔꽃, 봉숭아……

원 : 아~ 그러시구나! 저도 여름 꽃 하면 채송화를 좋아해요.

• 다음 날

• 채송화 선물, 이해인 수녀님의 '채송화'시를 읽어줌.

• 채송화의 밝고 겸손함에 대해 대화를 나눔.

• 화살기도 자주 하도록 알려줌.

• 작은 꽃처럼 작은 것 안에서 하느님께 겸손되이 하루 하루 봉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

#### 영적돌봄(8)

원 : 혹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 어떤 소외감 같은 것 느끼세요.

환 : 네, 느끼죠. 그 동안 병원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 점점 안보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와요. 그리고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없어서 소외감도 느껴요.

원 : 국화님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살아가면서 본인의 모토라고 할까 좌우명 같은 것이 있어 그 말씀만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하느님의 현존의식을 느끼는 것이 있으세요?

#### 영적돌봄(9)

환 :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이사야 41.10)

원 : 네, 하느님께서서는 미풍처럼 잔잔하게 다가오시지만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잃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는 내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히고 아픔과 고통이라는 어  
둠이 밀려 와도 마음 속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믿  
음만 있다면 나는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려움도 사

라질 것 같아요. 난 혼자가 아닌 하느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잃지 마세요.

- 성경의 옅의 말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  
환 : 수녀님 감사합니다.

## 자원봉사 부분

사람의 삶에 대한 애착은 살아온 삶보다도 더 강합  
니다. 38세란 짧은 삶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한 환우 국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 [첫 번째 만남]

어느날 오후 병원복도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국화가 있어 다가가서 보니 너무 젊었다.  
곁에는 간병중인 엄마가 힘없이 의자에 앉아있다.  
오전에 배정받은 봉사자가 방문 하였으나 피곤하다  
며 방문을 거절한 국화였다. 말없이 다른 봉사자와  
함께 성가를 불러줬다. 2곡을 불렀을 때 함께 따라  
부르며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다. '얼굴이 천사 같아  
요.'라고 말하니 '아멘, 고마워요'라고 했다. 등을 마  
사지 하며 '이렇게 하느님 사랑 안에서 좋은 것만 생  
각하시면 힘이 되고 평화가 됩니다.'라고 하니 거듭  
고마워했다.

### [두 번째 만남]

국화가 복도 긴 의자에 간병중인 엄마를 등반이 삼  
아 기대어 엎드려 있다. 항문 쪽이 불편하여 똑바로  
누울 수가 없고 병실은 답답해서 나와 있다고 엄마  
가 설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튼튼한 사랑이 깃든 베개를  
베고 계시네요.'하니 빙그레 웃었다. 등을 마사지 해  
드리며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라고 하자 아  
들이 다녀갔다고 곁에계신 엄마가 말했다.

### [세 번째 만남]

국화가 복도에서 엄마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다.  
엄마를 마사지 해 드리며 위로하니 국화가 눈물을  
보이며 고마워했다.

### [네 번째 만남]

국화가 엄마에게 기대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가간  
봉사자에게 아들이 왔다갔다하고 하고, 침대에서 잠도  
자다고 말했다. 국화와 엄마를 마사지 해드렸다.

### [다섯 번째 만남]

오후에 휠체어에 탄 국화를 병원복도에서 만났는데  
목을 다쳤으며 파스붙인 목을 보여주었다.

마사지를 해드리며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라  
고 하니 시원하다고도하고 아픈 곳은 아프다고 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하는 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으니 몸도 마  
음도 좋아지실 거예요'라고 하니 환하게 웃으며 '아  
멘,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 [여섯 번째 만남]

엄마와 함께 복도에서 걷는 운동을 하고 있다. 얼굴  
에 화장을 하고 예쁜 핀까지 꽂고 모습도 단정하다.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니 국화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  
이 통증 조절기를 사주고 갔다고 설명한다. 고개를  
마사지 하면서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중매  
결혼 하였다고, 어느 때 가장 행복했느냐의 질문엔  
아이 낳고 키울 때라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아쉬운  
것은 없다고 하였다. 봉사자가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남편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는 문자  
를 보내라고 하니 잠시 생각하다가 '예'라고 하였다.

2개월이 조금 넘은 만남인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  
지만 '시원해요,' '아파요'의 마음의 대화를 하며 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주는 사랑의 짐  
꾼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 앞까지 함께 걸으며...